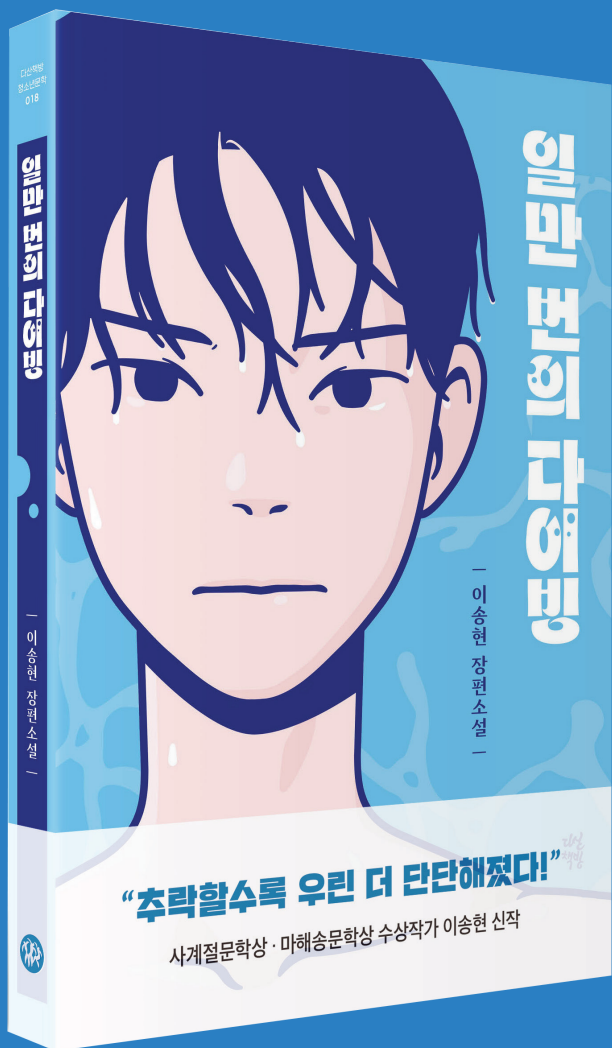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일만 번의 다이빙

이승현 장편소설

주제어: 경쟁, 라이벌, 슬럼프, 우정

•책 소개

훈련할 때마다 멀쩡한 이름 대신 ‘박풍덩’으로 불리는 무원. 한때 수영선수였던 그는 기재 코치의 묘한 코드감에 넘어가 다이빙으로 종목을 바꾸었다. “늦게 시작했으니 하루에 최소 150번은 뛰어야 한다.” 기재 코치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던진 말에 무원은 죽기 살기로 연습하지만, 동료들과 달리 일찍 시작한 게 아니다 보니 잘하고 있는 건지 긴가민가하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기재 코치에게서 새로운 과제가 떨어지는데 뭔가 이상하다. 3미터가 주 종목인 무원에게 10미터를 뛰라는데. 게다가 느닷없이 자타공인 에이스 권재훈과 함께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을 하라는 미션이 주어진다. 10미터 플랫폼 위에 나란히 선 두 사람은 푸른 물속으로 아름답게 몸을 내던질 수 있을까?

•학습 목표

- ① 소설에 제시된 다이빙 스포츠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 ② 등장인물이 처한 상황을 자기 삶과 연계하여 생각할 수 있다.
- ③ 작품과 관련된 사회현상의 문제점을 살피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독서 전 활동	다이빙에 대하여
2	독서 중 활동	꽃, 피었네 ~ 간식의 기술 1. (사실적 읽기) 등장인물 정리하기 2. (추론적 읽기) 자료를 통해 장면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며 읽기 3. (추론적 읽기) 표현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4. (감상적 읽기) 작품을 토대로 경험 떠올리기
3		머리부터 발끝까지 ~ 3과 10 사이에 존재하는 것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장면 상상하며 읽기 3. (사실적 읽기+감상적 읽기) 작품을 토대로 경험 떠올리기
4		아침에 만나 ~ Up & Down 1. (창의적 읽기+비판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사회현상 살펴보기 2. (추론적 읽기+감상적 읽기) 작품을 토대로 경험 떠올리기 3.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5		그건 빨강 ~ 별을 보았지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인물의 상황에 감정 이입하며 읽기 3. (추론적 읽기) 인물 간 상관관계 파악하기 4. (창의적 읽기+비판적 읽기) 작품과 관련된 사회현상 살펴보고 대안 마련하기
6		두렵지 않은 점프 ~ 팔꿈치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적 의미 파악하기 3. (창의적 읽기+감상적 읽기) 자료를 활용해 인물에 감정이입하기
7		회오리 ~ 고래의 꿈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감상적 읽기) 작품을 토대로 경험 떠올리기 3. (창의적 읽기) 만다라트 기법 활용하기
8	독서 후 활동	비인기 스포츠 알리기 캠페인 활동

1. 다이빙을 해본 경험이나 경기를 본 경험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2. 다음 영상을 보고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관련 영상: 고소공포증&물 공포증을 극복하고 숨 참고 다이빙
https://youtu.be/_MAG1ay4X9o

1) 영상을 보고 다이빙에 대해 알게 된 점을 세 가지 이상 써봅시다.

2)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해 봅시다.

3. 다음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관련 영상: 머리를 꿰매고 금메달 딴 전설적 사건!
<https://youtu.be/KeCyWRYxWBk>

4. 『일만 번의 다이빙』은 다이빙 국가대표를 꿈꾸는 고등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입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1. 등장인물을 정리해 봅시다.

다이빙부 코치	•	•	나은강
박첨봉	•	•	권재훈
다이빙계의 알파고	•	•	박무원
기적의 알바생	•	•	구본희
여자 다이빙계의 유망주	•	•	기재 코치

2. 영상과 <보기>를 참고하여 다이빙 훈련을 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묘사해 봅시다.



관련 영상: 다이빙팀 훈련장에 찾아가 보았어요!
<https://youtu.be/CN-6ewshubI?t=257>

〈보기〉

“그만 떠들고 다들 앉아서 오뎅이, 시작!”

기재 코치가 어느 틈에 나타나 호루라기를 불었다. B형 입수 모방을 시작으로 일요일 지상 훈련이 시작되었다. 오뎅이라고 부르는 B형 입수 모방 훈련은 시간과의 싸움이였다. 양팔을 벌리고 두 다리를 붙이고 앉아 오뎅이처럼 누웠다가 일어서기를 기본 1000개씩 해야만 했다. 1분만 지나도 등줄기가 땀으로 흥건했다. 일정한 속도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반복되는 동작을 보고 사람들은 “아, 쉽구나” 하겠지만 직접 해보라고 권하고 싶은 마음이다.

엄마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내게 뱃살 빼는 법을 알려달라고 했던 적이 있었다. B형 입수 모방 동작을 알려줬다가 다음 날 나는 등쪽에 엄마의 손금을 문신처럼 새겨야 했다. 배가 아파서 침대에 서 일어날 수 없다는 엄마의 분노가 하늘을 찔렀다. 그 어려운 걸 우리는 밥 먹듯이 해야만 했다. 그것도 기본 중의 기본으로 말이다.

3. <보기>에서 말하는 ‘우아한 공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

“박무원. 우리가 뛰어내릴 때 남들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우아해 보이려나?”

아파트 단지를 열 바퀴 정도 돌면서 활짝 핀 벚꽃을 보는 내내 내가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우아한 공포’에 대한 정의였다. 불이는 이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우리가 갖는 꿈은 공포를 이겨내고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일이었다.

나는 나은강이 고민하는 우아한 공포를 떠올리는 대신 둘이 걸으면서 내는 슬리퍼 끄는 소리를 마음에 담았다.

4. <보기>를 읽고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는지, 그것을 극복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신체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실력이 도무지 늘어날 것 같지 않다는 확신이 들었다며 괴로워하는 나은강에게 나는 어떤 위로도 건네지 못했다. 나에겐 슬럼프조차도 사치였으니까.

감독님은 슬럼프 없는 선수가 어디 있으며 슬럼프 한번 겪지 않고 성장하는 선수는 없다고 했지만 그 슬럼프와 맞닥뜨린 당사자는 한없이 흔들리게 된다. 누구나 겪지만 나와 똑같은 슬럼프를 겪는 사람은 없으므로 개개인에게 슬럼프는 반갑지 않은 손님이었다.

1.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 ① 무원 아빠의 직업은? _____
- ② 기창 할아버지가 무원을 부르는 호칭은? _____
- ③ 기적의 편의점에 있는 고양이의 이름은? _____
- ④ 기재 코치가 무원을 다이빙에 끌어들이기 위해 사준 음식은? _____

2. 다음 영상을 보고 <보기>의 장면을 묘사해 봅시다.



관련 영상: 다이빙선수들의 훈련

<https://youtu.be/FU8RrTvpG4?t=284>

〈보기〉

기재 코치는 비트 훈련 전에 꼭 시키는 일이 있었다. 훈련장 안의 우리는 거대한 어항 속의 작은 물고기 같았다. 매번 스펀지 조각이 가득 들어찬 비트 훈련장 안에서 허우적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존재들이 우리였다. 난이도가 높은 동작일수록 비트 훈련장에서 제대로 해야만 실제 경기에서 실수를 줄일 수 있었다.

3. <보기>에서 무원이 자신의 결점에 대해 말한 것을 참고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신의 결점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보기〉

“당근이지. 나, 고아야. 내가 전에 말하지 않았어?”
이런 식이면 반칙이다. 마음의 준비, 방어 태세도 갖추지 않았는데 이렇게 혹 치고 들어오는 건. 음료수

캔이 손에서 미끄러졌다. 대범하지 못한 것이 내 결점이었다. 그래서 다이빙대 위에 그토록 슬하게 올라섰으면서도 매번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긴장하는 모양이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침 넘어가는 소리가 유달리 컸다.

‘뛰어내리는 순간까지, 아니지 입수하는 순간까지 네 약점을 절대 드러내지 마. 무조건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태도에서부터 주라고.’

기재 코치가 늘 강조했는데……. 그런데 구본희는 대놓고 자신의 결점은 이렇고 약점은 이거다, 라고 툭 내뱉었다. 심지어 진열대 앞에 서서 음료수의 오와 열을 한 치의 오차 없이 맞추면서 말이다.

1. 다음 영상을 보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1) 영상에서 말하는 ‘조용한 사직’ 현상이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관련 영상: MZ 직장인들의 조용한 ‘팩폭’
<https://youtu.be/MB0JDqtMjFk>

2) 영상과 <보기>에서 말하는 내용을 참고하여 ‘조용한 사직’ 현상에 대한 생각을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관련 영상: 1인분만 한다? 1억 모으기?
<https://youtu.be/KyEchCKrwHc>

<보기>

“먹고 가. 나 근무 시간이라 더 떠들면 양심상 일당 깎아야 해.”

철저한 구분희다웠다. 돈벌이도 소중하지만 그러려면 근무 시간 또한 확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철칙을 갖고 있었다. 예전에 멋도 모르고 본인 가게도 아닌데 적당히 하라고 했다가 귀가 닳아서 사라질 만큼 원색적인 욕을 먹었다. 세상에 존재하는 욕이란 욕은 전부 들었다. 특히 정신상태가 글렀다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가게 주인이 누구든 일을 맡은 이상 이 일의 주인은 나 자신이니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말 앞에서 나는 잔뜩 쪼그라들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사기꾼이 된 기분이었다.

[지도 TIP]

영상 속 유현준 교수의 의견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거나 반박하는 내용을 구상하는 활동도 좋습니다.

2. <보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이제야 기창 할아버지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낙동강 전투를 치렀다는 말에 울컥한 나은강이 기창 할아버지의 손을 덥석 잡았다. 나와 달리 역사에 관심이 많은 나은강은 눈앞의 할아버지가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의 산증인이라며 울컥했다. 손녀뻘의 나은강에게 기창 할아버지 역시 감동했는지 나은강이 잡은 당신의 손이 잘 보이게 낡은 옷소매를 걷어 올렸다.

“아…….”

나는 바보같이 내뱉지 말아야 할 소리를 내고 말았다. 최악의 반응이었다. 기창 할아버지의 비밀을 직시했다. 의수였다. (중략)

기창 할아버지가 달변가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낙동강 전투 이야기를 듣던 나은강이 기창 할아버지의 용기가 부럽다고, 대단하다고 박수를 쳤다. 안 듣는 척하며 평행봉에 매달려 물구나무를 섰지만 나 역시 목숨을 걸고 전투에 임하는 기창 할아버지의 젊은 날을 떠올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전쟁과 직면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지만 세상이 거꾸로 뒤집힌 느낌이 아닐까. 나로서는 엄두도 못낼 용기였다. 그러나 기창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듯 호기롭게 웃기만 할 뿐이었다.

“대단할 것 없어요. 우리 모두 용기 있는 것이지. 산다는 건 용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야. 제각각 생김새가 다르듯이 우리에게겐 각자한테 어울리는 용기가 있지.”

1) 다음 영상을 참고하여 기창 할아버지의 젊었을 적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관련 영상: 이 영화가 천만 관객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https://youtu.be/OBLuioipz7k>

2) 내 삶에서 용기를 댔던 경험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3. 다음 영상과 <보기>를 참고하여 10미터 싱크로나이즈드를 뛰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관련 영상: 영혼의 단짝 싱크로 하이 다이빙 결과는?
<https://youtu.be/rswG0kNqrs4>

<보기>

무슨 작전인지 알 길이 없었지만 감독님은 나와 권재훈에게 같이 뛰라고, 전국체전 전까지 완벽하게 준비하라고 통보했다. 왜요? 어째서 같이 뛰어야 해요? 따위의 질문은 하지도 못했다. 질문을 한다고 한들 친절하게 답해줄 감독님이 아니었다.

감독님의 결정에 권재훈과 나는 한 팀이 되었다. 10미터 싱크로나이즈드를 뛰어야 하는 운명을 군소리 없이 받아들여야만 했다. 멍한 얼굴이 된 나에게 기재 코치가 건넨 말은 위로인지 수수께끼인지 애매모호했다.

“빅 픽처가 있으시겠지. 믿어, 너희 자신을.”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인이 내뱉을 법한 말이었다. 10미터 싱크로나이즈드라는 종목은 뛰라는 말 한마디로 쉽게 뛸 수 있는 종목이 절대 아니다. 두 사람이 10미터에서 한 몸처럼 한 호흡을 갖고 다이빙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예술이었다.

【지도 TIP】

영상을 통해 학생들에게 익숙지 않은 다이빙 종목의 특징을 익히는 활동입니다. 여기에서 나아가 싱크로나이즈드 다이빙을 통해 두 인물이 어떻게 성장할지 이야기를 나눠보는 활동으로 연계해도 좋습니다.

1.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 ① 기재 코치가 무원을 데려간 식당의 이름은? _____
- ② 기재 코치의 동료였던 식당 주인의 이름은? _____
- ③ 무원 엄마가 구본희에게 내놓은 웰컴 티는? _____

2. 영상을 참고하여 재훈이 부상당했을 때 무원이 느꼈을 심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관련 영상: “보드에 머리가 찢겨서 수영장이 핏물이 됐어요”

https://youtu.be/EIKhY_c5-Qw?t=27

3. 무원과 재훈, 기재 코치와 레게 사내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4.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1) 영상과 <보기>를 참고하여 보육원을 나올 당시 구본희의 심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관련 영상: 준비 없이 거리로 나가야 하는 보호종료 아이들
https://youtu.be/NuVT5P_B7Rc

<보기>

“소중한 집이야. 내 힘으로 들어간 첫 집이고, 지하지만 지상의 그 어떤 집보다 내 마음을 환하게 만들어줬던 집.”

보육원에서 십 대를 보냈다고 했다. 열아홉에 정부 보조금 500만 원을 들고 세상에 나왔다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는 고백에 어묵이 목에 걸렸다. 창문이 없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누에고치가 될 것 같아 뜯눈으로 밤을 새웠다고도 했다. 스물도 되지 않은 어린 구본희가 빛도 들지 않는 작은 상자에 들어가 몸을 잔뜩 웅크리고 숨죽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봤다.

“그때 내가 할 수 있었던 건 오늘도 무사히 살아냈으니 내일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어.”

2) 영상을 참고하여 보호종료아동에게 도움이 될만한 정책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관련 영상: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 옆에 든든한 어른
<https://youtu.be/8YfLoqfEHJE>

【지도 TIP】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통해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기획하는 활동으로 확장해볼 수 있습니다.

1. 다음 빈칸을 채워봅시다.

① “뭘 봉어처럼 들이키냐?”

어둠 속에서 구본희가 나타났다. 건물 뒤편에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오는 모양이었다.

“()”

“왜?”

“빨리 날이 밝으라고.”

② 다 알고 온 듯한 녀석의 행동에 쭈뼛거리며 다가가는 꼴이라니! 관절 마디마디가 다 굳은 느낌에 어이가 없었다.

“왔냐? 그렇게 오라고 할 땐 듣는 척도 안 하더니.”

뜻밖의 대답이 컷가에 꽂혔다.

“질투했거든. 시기도 했고, 고까워서 모른 척했지. 그땐 속이 ()이었어.”

③ 나는 기창 할아버지가 고마웠다. 코끝이 쩡하게 울리는 건 매운 떡볶이 소스 탓이었다.

“()”

쿨피스가 가득 든 컵이 내 팔꿈치 쪽으로 밀려왔다. 권재훈이었다. 남은 쿨피스를 내 컵에 몽땅 따랐는지 나온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새 쿨피스를 가지러 냉장고로 향했다.

2. <보기>에서 밑줄 친 ‘꽃무늬 수영복’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

다시 뛰기 위해 계단으로 올랐다. 눈앞의 권재훈 엉덩이에 시선이 꽂혔다. 녀석의 새 수영복이 어느 틈에 내 꽃무늬 수영복과 똑같이 바뀌어 있었다. 나온장이 며칠 전 밤에 권재훈의 문자 한 통에 수선을 피웠다.

‘박무원, 권재훈이 미쳤나 봐. 야밤에 나보고 너랑 똑같은 꽃무늬 수영복 어디서 사냐고 묻더라.’

3. <보기>를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다이빙대 끝자락에 서서 공중으로 도약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밸런스거든요? 균형. 까치발을 하면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고 그 힘이 내 몸은 당연하고 정신까지 꼭 붙들어 줘요.”

“그래서?”

나의 착각일까? 아빠의 눈자위가 빨갰다. 충혈된 눈동자는 고된 아빠의 삶을 슬쩍 엿보라고 내게 힌트를 건네는 듯했다.

“그러면 세상에 하나도 무서운 게 없어지더라고요. 아래로 뛰어내리는 게 두렵지 않게 돼요.”

두렵지 않은 인생이 지구상에 있기는 한 걸까? 나는 아빠의 무게도, 코치의 무게도 알지 못하는 열일곱이지만 딱 내가 감당할 만큼의 두려움과 무게를 아직 잘 짊어지고 있다. 그래서 아빠도 잘 견뎌줬으면 싶었다.

1) 영상 속 동작을 따라 해본 후 어떤 느낌이 드는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관련 영상: 제2의심장 종아리! 카프레이즈 운동 방법 및 스트레칭
<https://youtu.be/0h2Th3G1ftY>

2) 다음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관련 영상: Psy 아버지 한글노래, 한글가사
<https://youtu.be/9p11W518Qw4>

【지도 TIP】

소설 속 무원 아빠와 관련지어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① 무원의 집에 온 재원에게 무원의 아빠가 해준 조언은 무엇이었나요?

② 나은강이 부상당하기 전에 꾸 꿈은 무엇이었나요?

③ 다이빙을 앞둔 선수들에게 해준 조언은 무엇이었나요?

④ 구본희는 무원에게 어떻게 응원해 주었나요?

2. <보기>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해봅시다.

〈보기〉

고맙다고 낮간지럽게 속살거리느니 내 식대로 표현하기로 했다. 휴대폰을 꺼내 노래를 들었다. 주위를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크기로 틀었지만 노랫소리는 밤과 바람과 우리 둘 사이에 잘 스며들었다.

넌 딸기를 좋아하고 난 달을 좋아하지. 우리 둘이 함께 좋아하는 건 아이유.

“넌 왜 달이 좋은데?”

“다이빙폴 아래를 보면 막막해. 무섭고. 일만 번을 뛰어내려도 다이빙대 위는 늘 두렵고 힘들어. 그때 마다 떠올리지. 다이빙폴 한가운데 큰 원을 그리고 그 가운데로 떨어지는 모습 말이야.”

“그러니까 넌 보름달을 좋아하는 거네? 그름이나 상현달이 아니고.”

“그런가?”

“그렇지. 내가 딸기가 아닌 딸기우유를 좋아하는 것처럼. 원톱은 딸기지만 딸기는 비싸니까. 그렇다고 딸기 사탕은 자존심 상해서 별로.”

1) 영상 속 노래를 들으며 본희와 무원의 대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관련 영상: IU(아이유)_strawberry moon

<https://youtu.be/sqgxcCjD04s>

2)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를 친구에게 소개하고 그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에 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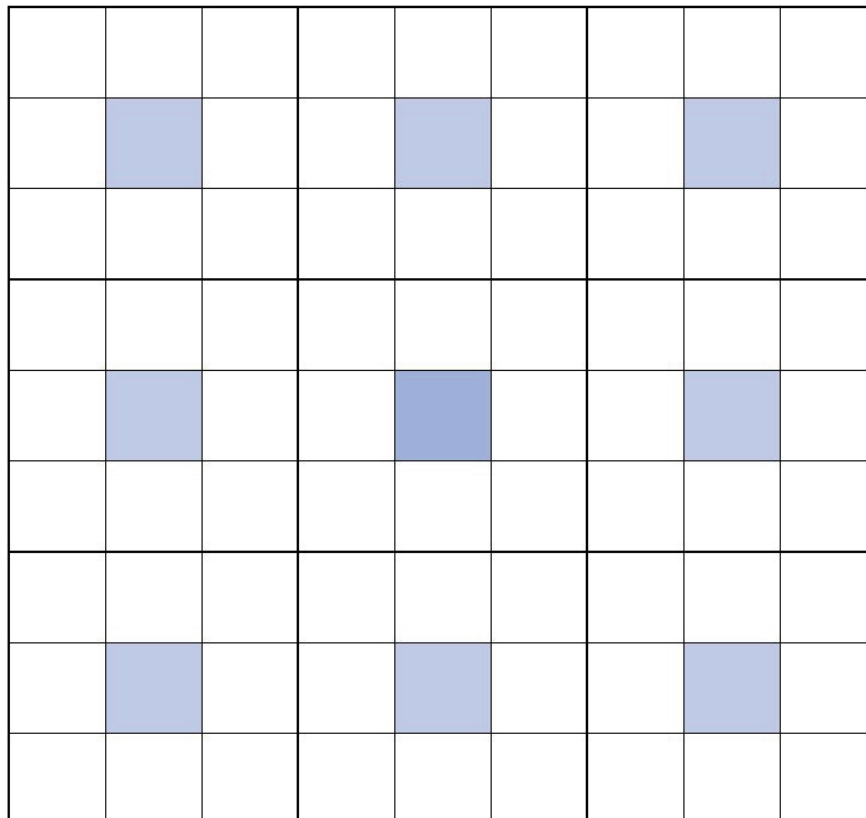
【지도 TIP】

특정 가수나 멜로디가 아닌 ‘가사’에 초점을 맞춰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게 한 후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지도해 주세요.

3. 이 작품은 금메달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다이빙 선수들의 노력과 성장을 그리고 있습니다.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여러분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을 만다라트 기법을 활용하여 표현해 봅시다.



관련 영상: 실행력을 높여주는 만다라트 기법
<https://youtu.be/Yavqm3jVXIQ>



1. 다음 영상을 통해 비인기 스포츠의 어려움을 살펴봅시다.



관련 영상: 필드하키, 카바디를 아시나요?

<https://youtu.be/5uqLDdRFmxE>

2. 다음 활동을 통해 비인기 스포츠 알리기 캠페인 활동을 해봅시다.

1) 인터넷을 활용하여 비인기 스포츠를 5가지를 조사해 봅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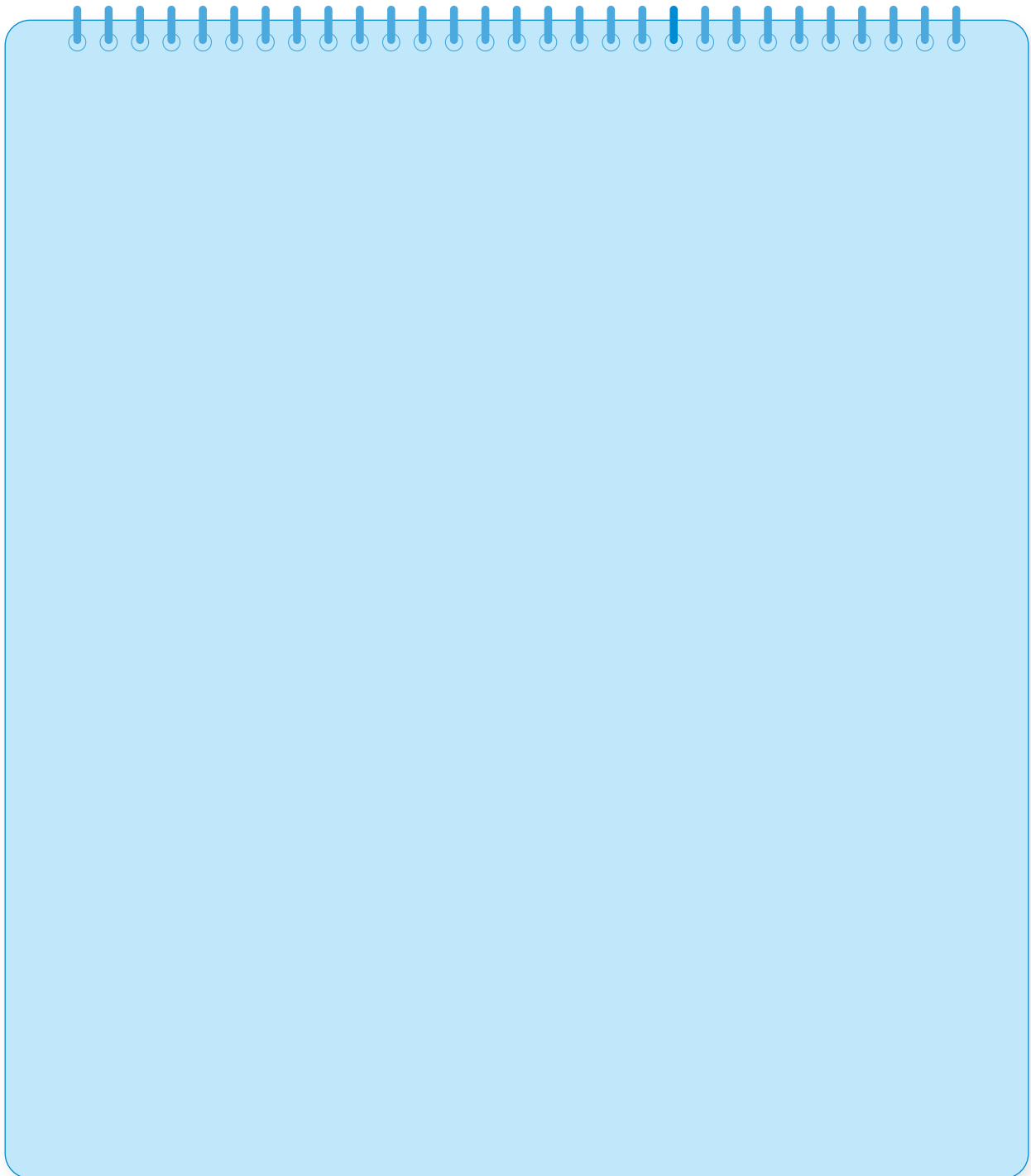
【지도 TIP】

검색창에 '하계올림픽 종목' '동계올림픽 종목' '아시안게임 종목' 등의 키워드로 검색하면 쉽게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2) 1)에서 조사한 스포츠 중 여러분이 알고 싶은 종목을 골라 아래 표를 완성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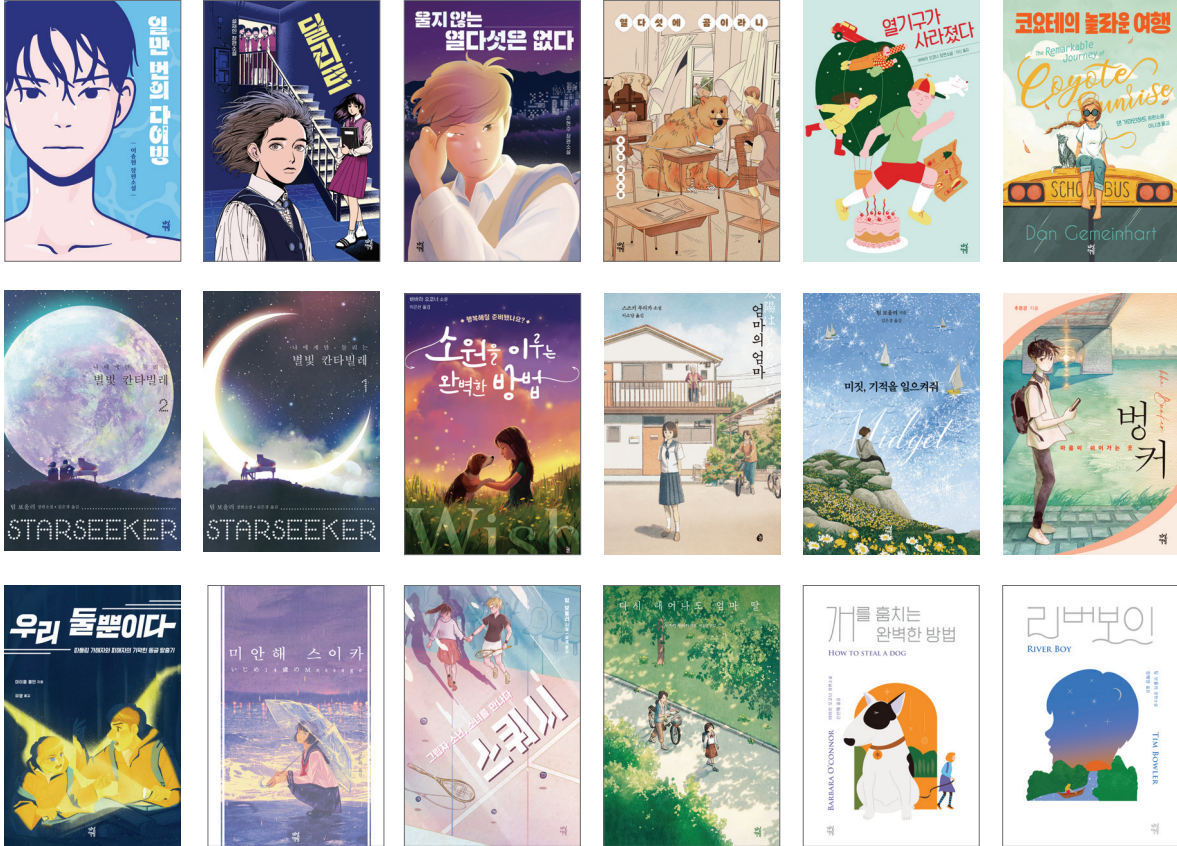
종목명	
세부종목 (없으면 생략)	
규칙	
대표선수	

3) 2)에서 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비인기 종목 알리기 캠페인을 위한 포스터를 제작하고 발표해 봅시다.



다산책방 청소년문학

다산책방 청소년문학은 오늘날의 십 대가 마주한 고민과 시대를 넘어서는 질문을 이야기로 풀어낸 시리즈입니다. 깊은 울림과 감동을 전하고 읽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작품을 엄선해 선보입니다.



- 18 일만 번의 다이빙 이승현 장편소설
- 17 딜리트 설재인 장편소설
- 16 울지 않는 열다섯은 없다 손현주 장편소설
- 15 열다섯에 곰이라니 추정경 장편소설
- 14 열기구가 사라졌다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13 코요테의 놀라운 여행 댄 거마인하트 장편소설
- 12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2 팀 보울러 장편소설
- 11 나에게만 들리는 별빛 칸타빌레 1 팀 보울러 장편소설
- 10 소원을 이루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9 엄마의 엄마 스즈키 루리카 장편소설
- 08 미짓, 기적을 일으켜줘 팀 보울러 장편소설
- 07 병커: 마음이 쉬어가는 곳 추정경 장편소설
- 06 우리 둘뿐이다 마이클 굴먼 장편소설
- 05 미안해 스이카 하야시 미카 장편소설
- 04 스쿼시 팀 보울러 장편소설
- 03 다시 태어나도 엄마 딸 스즈키 루리카 장편소설
- 02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바바라 오코너 장편소설
- 01 리버보이 팀 보울러 장편소설